



대구광역시 일보



세계물포럼 참가국, 경북 물산업 극찬... 성공신화



道, 올해 첫 추경 7조9920억원 편성
도의회 심의 요청



경북도가 2015 첫 추경예산 7조 9920억원을 확정, 도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김관중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농어촌 지원, 서민생활 보호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창조경제 확산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예년 보다 2개월 앞당겨 편성했다.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8%(6508억원) 증가한 7조 99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조 2810억원 보다 4691억원(7.4%)이 증액된 6조 7501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602억원 보다 1817억원(16.8%)이 증액된 1조 2419억원 규모다.

추경예산은 경북도가 지난해 말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국비 1143억원 등 중앙지원금 1660억원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금잉여금을 반영했다.

도는 각종 범정부·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비 확보, 가축방역 약품비 등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특징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급격히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신산업 발굴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과 만리장성프로젝트 등 문화도정 추진, 안전예산 확충,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을 뒀다.

'창조금융 MOU'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기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데 따른 올해 출연액 40억원을 반영하고 신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233억원을 배정했다.

김성용 기자

물산업 시찰 인기 폭발
포항 하수 재이용 시설
경주 하수처리 특허공법
고령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매일 1000여명 '문전성서'



김관중 경북지사는 15일 오후 지사 접견실에서 스위스 네슬레사 부사장을 만나 식품, 음료개발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대구경북세계물포럼 경북을 찾은 외국인들이 경북 물산업에 극찬을 보냈다.

제7차 세계물포럼의 산업시찰코스가 하루 1000여명이 넘는 각국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의 물산업기술과 현장을 세계에 홍보해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해 각국의 물 관련 기업체들이 포럼기간 물산업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포항 하수재이용시설, 경주 하수처리 특허공법, 고령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물산업코스 투어에 포함시켰다.

경주에 있는 하수처리특허공법은 도심의 초기 강우 시 오염농도가 높은 하수를 기존 8-12시간에 걸려 처리하던 것을 단 15분 만에 처리할 수 있고 녹조 제거에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공법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기술

로 터키 시장 일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시찰단 수백명이 방문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중국정부 자요용 수리부차관이 경주 하수처리 특허공법을 견학한 이후에 처리과정 및 공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경북지역 물산업 기술의 중국 진출가능성이 높다.

도는 중국정부의 요청 시 우수기업을 소개하기로 약속했다.

포항에 있는 하수재이용시설은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일뿐 아니라 공업용수 공급시설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포스코 등 포항철강공단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30억원 상당의 공업용수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 물부족국가와 개발도상국에게 깊은 관심을 받아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에티오피아의 고위급 공무원과 브라질의 국

책기관 연구자들이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비, 설치기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전자 메일로 관련 자료를 받아 보기를 요청하기도 해 추가미팅으로 이어질 경우, 세계 각국으로 수출계약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에 있는 국내 최초인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K-Water와 고령군이 협약해 기존 물관리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킨 것으로, 센서를 부착해 수량, 수질, 누수감지를 통합 관리하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도 수도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미래형 물관리시스템이다. 프랑스, 싱가포르, 국제기구 등 세계 유수의 물산업 기업들이 연구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 시스템은 이번 물포럼을 계기로 K-Water의 SWM으로 국제브랜드 화할 예정이며, 경북 지역의 물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김관중 경북지사는 "경북의 물산업 기업들이 이번 세계물포럼을 비즈니스로 연결해 물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물을 통해 먹고 사는 경북, 물로써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우 기자

대구조달청 '제멋대로 업무처리' 원성자자

대구조달청 주변 거간꾼
활동한다 소문 떠돌아...



국민권의 위원이 주관한 20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조달청이 민원을 제멋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아예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업

무'로 인해 원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업체는 나라장터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가 가능하다.

대구지역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위해 전산을 활용해 '제조물품 등록'을 대구조달청에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리시한 20일이 지나도록 대구조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빠서 서류를 못 봤다. 재접수를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재접수를 했지만 또다시 20일이 지난 14일 오전까지 '제조물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재차 대구조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빠서 서류를 못

봤다. 재접수를 해주겠다"는 똑같은 대답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 대구조달청 담당자는 "담당인원은 혼자뿐인데 업무량은 너무 많아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업무처리가 늦어지면 민원인에게 업무처리시한인 20일이 지나면 먼저 전화를 해 안내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담당자는 "전산시스템상 신청한지 20일이 지나면 신청내용이 삭제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제조물품 등록'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전산상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셈이다.

조달청이 민원처리 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업무처리가 늦어지거나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은 '미처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산상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어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대구조달청의 민원업무처리가 이렇다보니 조달청 주변에서는 이른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조달등록에 한시가 시급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건설링회사'에 급행비용을 주더라도 등록승인에 목을 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조달청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건설링 회사를 통해 조달청 관련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급행료나 브로커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원 대구경실련집행위원장은 "국민의 민원을 이처럼 허술하고 성의없이 대하면서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대구조달청의 조달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조달청은 뉴시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2차례나 접수하지 않았던 A씨의 '제조물품 등록신청'을 지난 14일 즉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정창오 기자



외출타기 떨어질라 조마조마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장 357주년을 기념해 열린 '2015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축하하는 남사당 줄타기를 선보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기고 있다.

Advertisement for '영천 제12회 보현산 별빛축제' (Yeongcheon 12th Bohyeonsan Starlight Festival) held from May 2nd to 5th, 2015. The festival features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science and astronomy, space-themed events, and performances. It is organized by the Gyeongbuk Yeongcheon Science Museum. The background is a starry night sky with a large yellow star and a child looking through a telescope.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완구 '비타500' 진실 공방

李총리, 3000만원 수수 의혹에 “전혀 기억 없다”... 대국민 사과도 박광운, ‘박스 본 적 없다’ 李총리에 “성 전 회장 목숨 바쳐 소설 쓴 거냐”

국회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5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앞서 이틀과 마찬가지로 ‘성완중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의 출장으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비타500 박스’에 담긴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를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먼저 사퇴하라, 가장 먼저 수사받아야,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총리는 이제 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 제1차 면담 수사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총리께서 질의를 받을 대상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하기 적절치 않은 것을 어떻게 조치 취하겠나, 위중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나”고 물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하루가 지나면 들통

나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이완구 거짓말 시리즈를 만들어봤다”며 2012년 대선 관여 논란, 금품 수수 의혹, 고성 전 회장과와의 만남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잘못이다. ‘성완중 게이트’는 전·현직 비서실장, 현직 도지사, 친박(친박근혜) 여당 실세가 한꺼번에 연루된 전대미문의 권력 게이트”라며 “총리는 뗏뗏하려면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미국 낚스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지 않나. 더 큰 혼란을 막고 진실 규명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예의”라며 “어떤 것도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의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처음에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다가 언젠가 증거 자료가 나오면 상황에 맞춰 말 바꾸기를 일삼는 총리의 답변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가볍게 보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광운 의원은 “제품명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비타500 박스를 본 적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이 총리가 “기억 없다”고 답하자 “성 전 회장과 관계자들이 목숨을 바쳐 소설을 쓴 거냐”고 재차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총리가 당시 선거사무소에 다녀간 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돈은 안 받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성 전 회장이 그날 왔는지 기억 없다고 하지 않잖나. 그럼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 없는 것 아니냐”며 “혹시 선택적 망각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4시40분 총남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 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같은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 문제, 공천 문제 등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난 사이”라며 개인적인 관계는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완중 리스트’ 검찰 수사와 관련, “대단히 광범위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조언을 했다.

(성 전 회장을) 동향 출신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성완중 리스트’ 파문 이후 처음으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더 이상 총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책 관련 질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성완중 파문 관련 의혹만 추궁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처 장·차관을 상대로

진행했다.

최경환 불참 놓고 여야 공방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DB(장국-총재단 회의)’와 ‘20 재부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의 출장을 용인한 정 의장을 향한 방문한 데 이어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강력 경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 문제를 내세워 국제회의에 경제 수장이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채가 1000조가 넘고 총리가 이 지경에 왔는데 부총리는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의장은 국회를 경시하는 이 정부에 경고하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최 부총리는 4월9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본인이 출국 전에 야당 지도부에도 수차례에 걸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사전에 약속된 국제회의에 경제 수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최 부총리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여야가 협력의 줄다리에 모두의 긴급 경제현안질문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檢 공정수사, 이완구 총리 사퇴해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파문과 관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자신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

다”면서 “이 총리가 검찰총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를 받는다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총리는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 지인들에게 총리의 권력을 내세워 입막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위임을 통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송지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이 양반한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투병생활을 하느라 2012년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실련은 “성 전 회장이 ‘비타500 박스’를 신고 이 총리의 부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서 점차 이 총리의 행방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해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 수 늘릴 수 없다”

“국회의원 1인당 공인회계사 의무고용시 예산 대폭 절약”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5일 “지금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수 없다”며 의원 정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기’ 토론회에서 최근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늘려주면 일을 더 잘하겠단다고 하면 의원 수가 적어서 일을 못한 것 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것”이라며 “일단 지금 수준에서라도 제대로 일하는 모습과 정치개혁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의원 수 확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보수

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이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도록 해 행정부의 예산·결산을 제대로 감시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회사 경영이나 학교 행정을 해보니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향후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 결산에 관심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예산만 따지다보니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회계사를 의원당 한 사람의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 200-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비해 20-30조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년 내내 예·결산을 잘 들여다보고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대통령, UAE 왕세제실장 접견

수자원 협력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물포럼 참석차 방한한 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제실장을 접견하고 수자원 분야 협력, 투자협력,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 등 양자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 당시 열린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에 수자원 부문 협력도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간 협력이 좋은 성과를 거둬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톨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상담수화와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매력적인 투자처인 만큼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FTA 플랫폼을 연계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UAE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대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UAE 방문 당시 체결한 제3국 공동진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기술과 UAE의 네트워크 및 금융을 결합해 제3국 인프라 사업에 공동 진출하면 상호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메드 왕세제실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상담수화와 태양열 발전분야 협력방안을 한국 측과 협의했고 한국투자공사와 공동의 해외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 “한국의 병원도 방문해 우수한 의료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과 UAE 간의 협력이 여타 중동 국가에 대해 서로 협력의 톨 모델이 되도록 하려는 모하메드 UAE 왕세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메드 왕세제실장은 세계 제2위 규모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의 수장으로 이날 접견을 통해 한·UAE간 협력 추동력이 보다 강화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4·29재보선,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 돌입

28일 까지 13일간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성완중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4·29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이날(16일)부터 선거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도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서구강화읍 등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편성한 가운데 선거분위기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3

경북의 장(醬)맛 CEO 아카데미 개설

식품제조업체 품질개발
마케팅 전략 교육 일환

경북도는 15일 (재)농민사관학교에서 '2015년 식품제조 경영기술 아카데미'입교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교

육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장류 제조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표, 브랜드, 특허 신청 요령, 마케팅 전략, 국제 식품박람회 견학 등 업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15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매월 2-3회 진행할 예정이며, 시·군 추천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모집한 교육신청자 35

명이 참여했다.
도내 장류제조업체는 300개 이상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품질표준화, 고급화는 물론 경영개선이 절실한 실정으로 '15년 교육평가 보고회를 거쳐 향후 5년간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다류 등 품목군별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류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업체의 효율적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우 기자



〈아시아 물 관련 고위급 회담〉

경주서 제4차 AWHoT 열려

국제협력체계 구축 위해
아시아 물 위원회 창립

World Water Partnership 교두보 열었다
15일 오전 9시 30분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4차 아시아 물 관련 고위급 회담(4th Asian Water High Level Round Table, AWHoT)은 아시아 지역 물 문제와 관련한 각종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나누는 회담이다.

이번 회담엔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장·차관과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물 공급, 위생 수자원시설, 재정 등 물 문제 해결대책을 모색했으며,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아시아 주요국의 수자원 현황을 공유하고,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Insight into Asian Water'보고서 발간식을 가졌다. 또 장기적인 아시아 중심 물 분야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Asia Water Council'을 론칭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우리는 앞선 물 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세 차례에 걸친 지난 AWHoT 회의가 물 관련 이슈에 대한



공감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4차 회담에서 설립하는 Asia Water Council은 물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아시아의 물 관련 여러 분야가 사회적·학문적·산업적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물 문제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지적 문제가 아닌 만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와 대구의 대한민국 물산업전을 통합해 싱가포르, 스웨덴(스웨덴) 물주간과 함께 세계 3대 물주간으로 정례화하고, 이번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역대 물

포럼 개최국이 함께 참여하는 '월드워터파트너십'구축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 Insight into Asian Water : 아시아 각국의 현황정보 공유를 통한 솔루션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라오스, 싱가포르, 대만,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몽고 11개국이 참여하여 만든 아시아 수자원 현황 보고서

※ Asia Water Council : 아시아 국가 중심의 물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주낙영 행정부지사, 긴급 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나서

아영장·도로공사장 등
안전실태 긴급 점검

경북도는 15일 팔공산에 위치한 가산산성 아영장과 동명-부계간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점검단장으로 소방,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잦은 안전사고와 재해발생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분야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사전 점검했다.

아영장에선 전기보전함을 점검해 누전 등 발생가능한 전기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석축 등 사면붕괴 대비 실태, 급수탱크의 안전관리 여부, 방화사 구비 등 유사시 신속 대응 능력 여부 등을 살펴 아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 정의운 부장 등 4명이 아영장 내 가로등을 비롯한 전기시설 144개소 전체를 안전점검해 아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했다. 건설공사장에선 현장사무실에서 현장 안전실태를 청취 후 터널현장을 방문해 터널 내·라이닝폼(박스구조물) 등 구조물 안전실태, 현장내 각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점검한 가산산성아영장은 1일 수용 인원 1500명에 약 210동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주말이면 행사 이용객이 붐벼 도

민의 레저문화를 책임지는 도내 대표적인 아영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명-부계간 도로공사 현장은 연장 14.2km 4차선에 공사금액 2447억원의 대규모 공사현장으로 완공 시에는 한터재 고갯길을 단축해 물류비용 절감과 도민이 팔공산을 찾는데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 현장이다.

범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안전대진단'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저수지, 교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2만9121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 현재 2만2501개소 78%를 점검했다.

진단결과 위해요인은 가능한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재관리기금, 조기 추경확보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수·보강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빈틈없는 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와 도 실·국장 시·군단장에게,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국가 안전대진단'전반을 컨트롤 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재난 대비 대응능력의 작성·활용 등 전방위적인 안전실태를 살피고 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시설물과 공사현장은 이번 점검처럼 민·관이 협심해 안전을 챙기겠지만, 그 외 생활주변에 조그마한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선 도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하는 등 도민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 재외동포 경제인, 구미에 모인다

21-24일, 전 세계 34개국
78개 도시 500여명 참가

대규모 해외경제인 네트워크로 구축된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구미에 모여 각종 경제활동 등을 펼친다.

경북도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박기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구미코에서 제1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모국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34개국 78개 도시 500여명의 월드옥타 회원들이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은 물론 투자활성화, 청년들의 해외취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활동을 펼친다.

행사첫날인 21일엔 오전 통상위원회 임원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회원들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남유진 구미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무역관련 유관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한다.

둘째 날에는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우수상품 전시회, 투자환경 설명회, 청년인력 해외취업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경북도는 월드옥타 회원과의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정보나 노하우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경제인들이 현지 경제·무역 정보를 비롯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진행해 해외시장의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해외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투자 환경설명회를 개최해 구미국가공단과 포항철강공단을 비롯해 동해안 해양관광, 북부 산림자원 등 경상북도 투자에 한인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무결점 신청사 이전 실무담당자 현장교육

안전행정국 직원 내일까지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경북도 안전행정국 직원 30명은 이전을 앞두고, 신청사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현장교육에 나섰다.

유성근 정보통신과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현장 교육단은 신청사이전을 위한 분야별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됐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와 충남도청, 정부세종청사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이전과정에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신청사 이전의 최 첨병에 선 안전행정국 직원은 이번 현장교육에서 △신청사이전 초기 시설 및 주차관리 정상화 방안, △이전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등 사기양양방안과 신도시로의 이주 촉진방안, △기록물관리 및 보존대책, △신청사이전과정에서의 안전대책, △통합방재센터 운영 등 시설물 통합적 관리사례 등을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 분석과 개선책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행복한 가정설계를 주제로 강의의 진행한 한명환 강사는 신도청으로 이전하면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말부부를 할 직원이 많은 것인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직원 1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도시 등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직원이 870명(63%), 이주 불가한 직원이 520명(37%)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와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도청 이전 T/F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환 안전행정국장은 "신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이전을 넘어 경북의 역사와 전통, 혼이 이전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신도청 이전과정에서 무결점 청사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우 기자

5월 29일?

사회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4

광고문의·기사제보
053)253-0000

사건·사고

구미경찰, 80대 모친 존속살해 40대 검거

구미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82)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구미시 송정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의 목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평소와는 달리 A씨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점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년 전부터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진 기자

상가·차량 등 닥치는 대로 절도 혐의 20대 일당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가와 차량 등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친 남모(20)씨와 이모(25)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남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3시에 동구 신기동 한 식당에서 주인 김모(48)씨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서너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24일부터 최근까지 상가와 차량 등에서 총 35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아버지 집에서 살며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와 이씨는 상가와 차량 등에서 금품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스마트폰 등 돈이 되는 물건은 무작위로 훔쳤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구경민 기자

‘투자 명목’ 1억3000만원 팔짝 스리랑카인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스리랑카인 A(4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6-2008년 한국에서 통역 일을 하면서 알게된 여행사 운영자 김모(46)씨에게 접근해 사업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최근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등에 섬유 원단과 중고 컴퓨터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스리랑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김씨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까지 여행사 대표인 피해자 김씨에게 스리랑카 여행객의 비행기 티켓 판매 알선 등을 통해 쌓은 신뢰감을 사기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대구경찰, 용역비 1억 때먹은 4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억원에 가까운 공장부지 매입용역비를 챙긴 신모(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8월14일 대구시 서구에서 섬유제조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48)씨에게 공장부지 매입 용역 작업을 해주겠다고 작업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총 982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종관 기자

근면 성실한 태도로 현재 위치에서 전진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것이다. 48년생 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뜻하지 않은 시비로 곤경에 처할 염려 있다. 2·4·10월생 자신에게 연관된 일이 아니면 절대 나서지 말 것. 73년생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으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투자는 초인재 재미 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믿었던 사람이 변신할 우려가 있다. 1·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메사가 순조로우니 오랜만에 웃을 수 있다. 신의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전념하라. 63년생 1·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52년생 자신을 지키려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다. 2·5·8·12월생 성공을 하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달면 삼키고 쓰디고 뱉는 것은 배신행위다. 도매업 보형계 지영업자는 꾸준히 노력할 것.

주위 사람들의 오히려 구실이 있겠다. 53년생 1·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메사가 힘들다. 66년생 2·5·7월생 결실을 단단히 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뿌린 것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맘 돌린 보람이 있어 소망이 성취될 운이다. 7·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준비 없이 우리에게 시작하면 말쑥한 생기고 포기하게 된다. 현재 상태에서 꾸준히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3·7·11월생과 혼인하는 게 좋다. 지금 주위에 그런 이성이 있으면 붙잡아라. 천상배필이 된다.

진행하는 일 모두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운이다. 아랫사람을 소중하게 다스리는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 1·5·8월생 지금 하는 일 변통 가능. 사랑하는 자의 힘이 필요할 때, 의심 말고 잡아라. 1·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니 힘든 일은 약논함이 좋겠다. 70년생 1·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분수를 모르고 경거망동 하다가 관재수에 휘말릴 염운이다. 7·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

대구교육청 도시락데이 “교육적 문제 많아”

교육청 “학부모·학생 만족 확대방침” 시민단체 등 “소외 아이 배려 없다”



대구교육청이 사랑과 소통을 위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사랑의 도시락데이'를 올해부터 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대구지역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219곳 중 94.9%인 208곳이 실시하고 있다.

도시락데이는 한 달에 1회 정도 학교 급식대신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작은 편지를 써서 도시락에 함께 넣어주고, 자녀는 감사의 편지를 써서 화

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학부모·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도시락데이가 즐겁다'(학생 93%), '도시락데이가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학부모 72%)는 등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은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도시락데이가 일선 초등학교에서 긍정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올해 운영을 희망한 중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시락데이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4일 성명을 통해 "도시락데이는 맞벌이와 편부모, 조손가정 가정환경의 차이로 소외받는 아이들이 느낄 감정과 상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도시락데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에서 "도시락을 사 올 수 없는 학생에게는 반교육적 행위를 자행하는 꼴이고 이는 차별급식에 이은 차별도시락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반인권

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최모(41·달서구 이곡동)씨는 "바쁜 아침시간에 도시락을 챙겨주기가 어려워 전날 저녁에 만든 김밥을 챙겨주고 있어 아이에게 미안한 날이 도시락 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모(38·북구 산격동)씨는 "하지 않던 일이라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도시락데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간 사랑을 느끼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뚜렷한 만큼 일부에서 지적하는 도시락 준비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 도시락데이를 확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송종관 기자

경대병원 노조 파업 찬반투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1100명 대상 실시 노조 또다시 파업돌입 예상

개원 이래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경북대학 교병원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11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국립대병원 성과급 도입과 상시업무자 정규직화 등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병원과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노조는 15일간의 쟁의조정 기간 동안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대병원노조 관계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에도 병원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지한 합의를 못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번 조정회의에서 노조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바로잡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지침 이행 반대 등을 내세우며 지난해 11월27일부터 올 1월까지 50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였다. 송종관 기자

대구 앞산터널 대형차량 통행료 100원 오른다



상인-범물 전체구간 파동-범물 구간올라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앞산터널로의 대형 차량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산터널로를 지나는 대형차량은 상인-범물 전체구간 기준 기존 2000원에서 21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상인-파동 구간(1300원)은 종전 통행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파동-범물 구간은 기존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올랐다.

경차 및 소형차량은 변동 없이 종전과 같은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전체구간 기준 경차는 600원, 소형 차량은 1400원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책정된 통행료를 별도 인상 없이 운영해 왔지만, 소비자가치주와 연동해 매년 통행료를 재조정토록 한 협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100원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경북도 “119구급대원 폭행사범 엄벌”

구급대원 폭행사범 수사 송치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맡아

경북도는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

지난해부터 구급대원 폭행사범의 수사와 송치는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경북도내 17개 소방서에 81명이 지명돼 있다.

이들은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과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수사실무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소방현장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법,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과 효율적인 압수·수색 방법, 소방사법 수사절차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현장조치와 폭행사범 인건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첫 단계부터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송치하도록 업무지침을 지시했다. 이원우 기자

영주 부석사·소백산 ‘한국관광 100선’ 선정



위쪽부터 영주 부석사, 영주국립공원 소백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영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부석사와 소백산이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 관광지 ‘한국관광 100선’에 올랐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각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명소와 국민들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한국관광 100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수도권이 18곳, 강원권 15곳, 충청권 10곳, 전라권 18곳, 경상권 28곳, 제주 11곳으로 경북지역에서는 영주 부석사와 소백산을 비롯해 9곳이 최종 선정됐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한 우리나라 10대 사찰이다.

부석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비롯해 조사당(국보 제19호),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등 국보 5점, 보물 6점, 유

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높은 연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녀 2013년 12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사찰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됐다.

소백산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198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총면적이 32만2383㎢로, 경북지역에 1만7356㎢, 충북지역에 14만8823㎢가 분포돼 있다.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으며 영주지역에서는 죽계구곡과 희방폭포, 희방사, 비로사 등 자연과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한국관광 100선에 영주시에서 부석사와 소백산이 선정된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1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대구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배광식 북구청장은 16일 오전 동천동 동행교회에서 열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 순회봉사 행사'에 참석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16일 오전 동구의회 분회 의장에서 열리는 '제250회 동구의회 제2차 분회의'에 참석한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16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30 예비창업자 간담회에 참가 이틀의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달서 첫 나눔장터 성료

올해 첫 '달서나눔장터'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송현역과 2호선 용산역에서 450명, 116팀이 참여했다.

나눔 장터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한 가족단위 팀이 주를 이뤘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버리기엔 아까운 각종 의류, 도서, 신발, 장난감,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팔기 위해 장터를 찾는 이웃들에게 참여 팀들의 열띤 판매 광고, 홍보도 눈길을 끌었다.

판매부스 외에도 전통놀이, 풍선아트, 네일아트, 핸드페인팅, 공방 등의 체험마당 7개 부스와 6개 자원봉사단체 부스도 별도 마련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판매 수익금의 30%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는데, 이날은 54만7500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나눔장터는 10월까지 매월 토요일 한차례 열린다. 다음 장터는 새달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송종관 기자

'보육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식 열려

동구청은 15일 소회의실에서 건강·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 4명, 영유아 부모 4명을 '부모 모니터링단'에 위촉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 활동, 2인 1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관내 어린이집 140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부문에 대해 컨설팅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부모 모니터링단은 영유아 부모님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과 전문과의 조연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칠곡경북대병원 제1기 고객평가단 발대식 가져

칠곡경북대병원이 제1기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가졌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기능을 갖춘 선도적 지역의료기관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고객평가단을 구성했다. 행사

에서는 제1기 고객평가단 단원 12명과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고객평가단 운영소개 및 단위위촉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단 단원 12명은 사업가와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있다. 송종관 기자



동구 새내기 공무원들 특별한 나들이



역점시책 현장 문화탐방

동구청은 15일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동구 역점시책현장 및 문화탐방'을 가졌다.

동구청은 매년 신규 임용직원들을 대상으로 동구의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역점시책현장과 문화재 시설을 방문, 동구 바로

알기를 알리고 있다.

올해는 신규임용직원이 많은 관계로 15, 23일 두차례 나눠서 한다.

탐방은 신서혁신도시, 안심도서관, 율하체육공원 견학과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 안전의식고취와 더불어 팔공산자락의 신승경장 군유적지와 불로고분군과 나비생태원 등을 둘러봤다. 구경민 기자

서구 교육발전 민·관이 물꼬 튼다

(사)서구교육발전위원회

(재)서구장학회 동반출항

(사)서구교육발전위원회와 (재)서구장학회가 손잡고 서구 교육발전을 위해 동반 출항을 시작했다.

(사)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말 총회에서 올해 인재육성 지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결정, 3월 한달간 관내 31개 학교로부터 사업 신청 받은 결과 21개 학교에 9800만원을 지원했다.

서부초등 등 16개 초·중학교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지원, 달성과 등 5개 고교에는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및 학력향상을 위한 인재 프로그램, 특성화 취업 역량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한다.

(재)서구장학회도 3월초부터 2주간 관내 우수·모범·체육특기생·선행 학생 부분을 접수 받아 3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총46명의 장학생을 선발, 오는 17일 총 2456만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설립된 두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하여 서구 관내 학교 및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 개발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눔의 태동

달서구, 임산부와 함께 나눔 체험 교실 운영



달서구가 오는 17일 임산부와 함께하는 나눔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이날 달서구청 보건소 3층에서 임산부 25여명을 대상으로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해 나눔을 실천한다. 송종관 기자

달서구는 달서구민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와 함께하는 나눔 체험 교실은 '달서 전 생애 자원봉사 이야기' 중의 하나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미혼모와 아기들을 위해 예비 엄마인 임산부와 함께 진행한다.

'임산부와 함께하는 나눔 체험 교실'에서는 자원봉사 생각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기초교육과 초록니트 공방 강숙희 대표와 함께 신생아에게 필요한 펠트 모빌을 만들어 지역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대구클로버'에 기증하게 된다. 펠트모빌은 바느질 기초과정 교육 후 임산부들의 정성이 모여 완성, 바느질을 어렵게 느끼는 신세대 임산부들은 바느질을 배우고, 태교에도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된다.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기를 위해 정성껏 만든 펠트모빌은 사회의 따스한 시선과 고경관념으로 상처 받은 미혼모와 아기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용기와 희망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자원봉사팀(053-667-3662)으로 하면 된다. 송종관 기자

대구국제 안전전 통·번역 지원

북구청, 22-24일까지 EXCO서 중기 수출상담

북구청이 관내 중소기업체의 외국어 통·번역 지원을 위해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어 도우미'들이 오는 22-24일까지 EXCO에서 열리는 2015 대구국제안전전에 참가, 수출상담 등 중소기업의 통·번역 업무를 지원한다.

북구청의 '외국어 도우미'는 지난 3월 관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번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소속 직원 8명(영어 3명, 일본어 3명, 중국어 2명)으로 꾸려진 언어 봉사단이다.

대구국제안전전에는 영어권 3명과 중국어권 1명 등 4명의 도우미들이 3일간 2개 업체의 부스에 직접 출장, 외국인 바이어들을 상대로 수출상담과 제품설명, 가격협상, 회사소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번역 업무를 지원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해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수성구보건소, 제10기 '명품 할아버지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

수성구가 어르신들을 육아9단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수성구보건소(소장 홍영숙)는 15일 오후 2시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제10기 '명품 할아버지·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 개강식을 갖고,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비시터 대학은 육아 부담 해소를 통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5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주3일(수,목,금) 7주간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40세 이상 65세 이하 수성구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출산장려 가족문화 만들기, 모유수유, 제대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영유아 약선요리와 이유식, 영유아 아토피와 알러지, 산후조리원 현장 실습 등 총 20강의 전문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지역 내 대학교수, 병원장, 모유수유 전문가 등을 초빙해 전문 교육으로 진행되며, 평가를 거쳐 수료증이 수여된다. 송종관 기자

강대식 동구청장은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미래는 젊은이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듯이 보다 나은 동구를 위하여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 하지 말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민 기자

'제6기 에코맘 녹색아카데미 교실' 운영



중구청, 기후변화 대응 역할 인식 생활습관 변화 녹색환경 실천

중구청은 15-5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까지 6회에 걸쳐 대동1동주민센터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 35명이 참여하는 '제6기 에코맘 녹색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6기 에코맘 녹색아카데미교실'은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에서 다양한 친환경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 문화정착을 꾀

하기 위해 5명의 환경전문 강사를 초빙 △녹색생활실천 선도자로서 녹색환경마인드 함양 △생활습관의 변화로 녹색환경 실천 △녹색생활실천 현장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안심도서관 '이금이 작가와의 만남'

'제51회 도서관주간' 기념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안심도서관은 '제51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초청된 김기남 △유진과 유진 △너도 하늘말나리아등을 저술하고 △소천아동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등을 수상한 이 시대 최고의 아동청소년작가 이금이작가가 초청됐다.

초·중등 교과서에 여러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기도 한 이금이 작가는 연령을 초월한 공감

대 형성으로 넓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작가이다. 도서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사계절출판사의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에 선정 진행됐다.

강연은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과 사인회도 함께 열렸다.

안심도서관장은 "청춘이기에 겪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포항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6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청송대에서 열리는 '민선6기 제1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한다.



포항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GAP 교육의 날

GAP인증 획득하려는 농업인들의 관심 급증

포항시는 이번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GAP(농산물우수관리)기본교육의 날로 정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농산물의 GAP인증을 획득하려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기본교육 요청이 최근 들어 급증함에 따라 교육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는,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GAP교육은 전담인력과 교육장 확보 등의 문제로 주로 작목별 농업인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작목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희귀작물을 재배하는 소수 교육 수요자나 작목반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올해 4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GAP 기본교육의 날로 정해 정례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요자는 작목이나 인원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았던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GAP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소비촉진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GAP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700여명을 대상으로 GAP기본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12일 송라-청학지역 단감재배농가 장기 산발기재배농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원우 기자

포항 북구보건소, 건강한 직장 만들기 앞장서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건강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관내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스트레스 증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직장인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15개교 200여명의 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영양상담 등을 실시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업무로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방문을 통한 기초 검진으로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포항 심장부 '구 포항역 복합개발' 돛 올린다

포항-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단 구 포항역 복합개발 양해각서 체결

지난달 31일 KTX개통으로 기존의 포항역이 이달 2일로 폐쇄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KR), 포항시 3개 기관이 '구포항역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구 포항시의회 의장, 한국철도공사 박노상 사업개발본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수형 시설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3개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포항의 중심지역에 어우러질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할 것을 논의했다.

구포항역 철도부지는 약 6만6097㎡의 면적으로 소유지분은 국유지가 4만4145㎡, 코레일

이 2만633㎡, 포항시가 1319㎡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달 내 KR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6개월 동안의 용역기간 중 주민의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구상 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공공사업(도로개설) 착수, 2021년에 '구포항역 복합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포항시는 2015년 12월에 완료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구 포항역 복합개발'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구 포항역 복합개발'에 포함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도 2021년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심장부라는 지리적인 중요성을 본다면 100년 역사를 가진 구포항역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53만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



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로드맵에서부터 세부적인 실행까지 시민 전체의

뜻을 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위생 점검

어린이 날 대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중점 점검



포항시가 어린이날 및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적 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분청과 남·북구청 위생공무원, 소비자감

시원 등 39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이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분식점 및 문구점 등 4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표시 제품과 불량 원재료 사용여부 △유류기판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등의 여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위생상태 △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 세척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포항시 박인환 식품위생과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주변 식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우 기자

포항, 바깥활동 많은 봄철 식중독 주의

남구보건소 모범(건강)음식점 찾아가는 싱겁게 먹기 교육 실시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싱겁게 먹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17일부터 11월까지 관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싱겁게 먹기 교육과 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남구보건소는 남구 관내 모범음식점과 건강음식점 40개소를 3권역(이동권역, 오천권역,

해도권역)으로 나누어 보건소 담당자와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 미각테스트를 통한 싱겁게 먹기 실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음식점의 대표음식의 염도를 측정해보고 적정 권장 염도를 안내하는 등 싱겁게 먹기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남구보건소는 이번 전문교육과 홍보를 통해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싱겁게 먹기 운동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호 기자

농기센터, 벼 우량육묘 위한 종자 가리기 당부

포항시, 종자까락 제거와 소금물 담갔을 때 가라앉은 종자만 사용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벼 우량묘 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량종자의 엄선을 위해 적정 소금물의 종자 가리기와 철저한 약제 소독 등을 당부했다.

최근 기후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못자리 설치에 앞서 소금물 종자 가리기는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벼 못자리는 중요도를 기준할 때 모내기 35일전쯤이 파종 적기이지만 파종 전 충실한 종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비중 1.13의 소금물(물 20리터, 소금 42.4kg)에 일반 벼 종자를 담가 물속에 가라앉은 종자만 사용한다.

찰벼종자는 물 20리터에 소금 13.6kg을 녹여 일반 벼와 같은 방법으로 가리기한 후 전용 종자소독약 기준량을 희석한 약액에 종자를 넣고, 물 온도에 따라 24-48시간 정도 침지 후 맑은 물로 2-3회 씻은 다음 종자가 싹트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을 흡수하도록 물 온도에 따라 5-7일(침종 함산온도 100℃)정도 침종하거나 전용발아기에 넣어 새싹이 약 1-1.5mm 정도 될 때 물기를 제거한다.

이후 종자처리 전용약제와 골고루 섞은 다음 상자당 약 30g정도를 파종하면 종자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포항시가 보급하는 정부 보급종 종자는

충실한 종자만을 엄선한 관계로 소금물 가리기는 생략할 수 있으나, 종자에 묻은 붉은색 약제는 물속에서 희석되어야만 종자 소독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살충제를 1000배액 섞은 물에 24-48시간 침지 소독 후 맑은 물로 2-3회 씻은 후 자가 채종한 종자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기간 침종 후 파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종자 소독이나 침종시 충분한 양의 물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가 포장된 PP포대를 풀어 방사자루에 담아 침지할 물의 양 절반의 종자를 담가 소독약액에 충분히 담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약성 키다리병도 약 94%까지 방제가 가능하다.

농가에서 종자를 물에 침종할 때는 충분한 산소공급이 필수적임을 감안해 공기발생기를 넣어 가동시켜야 우량한 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뿌리가 없는 상태의 연약한 새싹이나 불량한 묘가 발생될 수 있다.

포항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236톤의 정부 보급종 이외에 자가 채종한 종자는 전량 소금물가리기를 권하고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1.02정도 비중의 바닷물 사용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마친 종자 소독약물은 배수구에 버리지 말고 약액에 흙, 볏짚재를 섞은 후 퇴비와 혼용 해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종자소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270-37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

건강진단 3년제 확산
27만명 지원 30만회 상담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혼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에 편차를 전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환자병 및 방치환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병원 및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 기준, 금액 비교

56만원
→
3만 9,000원

개인 간병비 → 포괄간호서비스 이용시 병행 활용으로 대폭 추가비용

우리 지역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입니다

울진군에도 건강보험 054-432-8901
울진군에도 건강보험 054-850-6000
포항시농업기술센터 053-540-7575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7

쓰레기더미를 꽃동산으로 새롭게 변신시켜

성주 용암면 문명1리 꽃동산 조성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14일 문명1리 도로변 공터에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메

리골드, 금잔화, 페튜니아, 제라늄 등 다양한 꽃을 식재 꽃동산으로 새롭게 변신시켰다. 그동안 지역민과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로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인

근 농지와 하천으로 쓰레기가 흩어져 처리가 시급해 용암면은 장비를 동원, 쓰레기를 처리하고 꽃동산을 조성했다.

김창수 용암면장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터에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 깨끗하고 정감 있는 용암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달성 고령 성주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김문오 달성군수는 16일 구지면 내리 달성2차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신용보증기금 달성지점 개소식'에 참석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1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별고를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성주군 선남면 의용소방대 백천변 쓰레기 2톤여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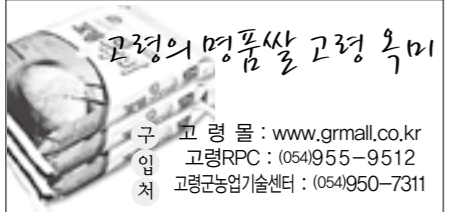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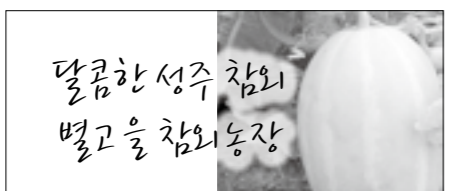
성주군 선남면 의용소방대(대장 정동식)는 지난 13일 대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지류인 선원교 백천변 정화활동을 실시, 쓰레기 등 2톤 여를 수거했다.

선원교 백천변은 낙동강 지류로 뉘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낙동강으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쌓인 부유물로 인해 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정동식 의용소방대장은 "클린성주 만들기 본격시행 이후 들녘과 하천이 깨끗해졌지만, 클린 사각지대를 위주로 캠페인과 정화활동을 더 전개해 주민의식 개화에 앞장서겠다"며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선남면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에서는 13개 정화구간을 지정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두상 기자



달성군, 농업·농촌 활력... 농업보조사업 추진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1억원 투입

달성군은 FTA 체결 확대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달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걸쳐 2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농업보조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달성군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박스 지원 사업 9억원, 농촌인력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3억원, 농약사용 최소화를 위한 비병해충 방제사업 1억8000만원, 노동력절감을 위한 참외자동선별기 지원 사업 1억4000만원, 시설원에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걸쳐 총 21억여원의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수 용암면장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터에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 깨끗하고 정감 있는 용암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김문오 달성군수는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결 및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고령소방서,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 큰 호응

대가야체험축제 기간 행사장 관람객 대상

고령소방서는 대가야체험축제 기간 중 행사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119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해 좋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체험장에서는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처치 체험장, 연기소화기 체험장, 소방현장활동 사진전시회와 함께,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 지진체

험 및 지하철탈출 체험, 연기 속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체험행사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상인 고령소방서장은 "체험교육이라는 한계로 더 많은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에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히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관련 모든 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고령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고령군은 지난 14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공모사업의 보조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민간위원 8명, 공무원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2016년부터 사업비지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14건 공모사업 선정 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성주군, 우리 동네 방역은 내가 책임진다

주민자율방역단·방역업무 담당자 140여명 교육참여

성주군은 2015년 방역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율방역단 및 방역업무 담당자 140여명에 대한 교육을 15일 보건소에서 실시했다.

주민자율방역단(10개 읍면 92개단 128명)은 취약지역 등 동네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돼 위생해충의 서식지(모기, 파리 등)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등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역할 및 운영, 방역소독방법(장비, 약품, 관리 등), 감염병 예방(쓰쓰가무시증,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에 대해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 언제든지 찾아가는 방역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강지킴이로서 주민자율방역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고령군 체납세 정리대책 워크숍

고령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고질체납차량·골프장 등의 체납정리 대책 및 징수 표준 매뉴얼 개발'을 위한 경북도 체납세 워크숍을 유치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인민관에서 김교일 경북도 세정과장과 시군 체납세 담당자 53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담당자 및 광주광역시 김재량 체납세 담당자 등 총 60명이 참석해, 평소 일선에서 접할 수 없었던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평소 읍지에서 자신

을 드러내지 않고 녹록치 않는 체납세 징수 업무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추진해 가는 세무공무원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참석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난 해 행정자치부 주관 체납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김재량 주무관을 초청해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의 주제로 한 특강을 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체납세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작성 및 토론을 거쳐 연구과제의 발표 및 총평이 있을 예정이다. 김양수 기자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우리밀!!

우리밀은 제2의 주식입니다.

우리밀 1석3조의 좋은 점!



건강한 밥상·행복한 세상
우리밀이 만들어갑니다

우석농산

재배에서 식탁까지

생상품목: 밀가루, 국수, 보리쌀, 밀쌀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한 힘쓰시는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정원으로 우리밀 이용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해 주정원에도 우리밀 이용을 크게 늘려주시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관계 회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자기의 수입 원료를 대신한 우리밀 주정원용 3인분 약속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대응적 결단입니다.
- 주정원용 우리밀 이용에 큰 힘을 보태주시 농림수산식품부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2013년 군급식에 우리밀이 쓰여집니다.

2013년부터 군인정병 식단에도 우리밀이 공급됩니다. 국민들의 우리밀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국회와연임을 모두의 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에 보다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한 최선의 길은 식품가격경쟁력, 외산농산물 가격 부담없이 우리밀 선택이 가능토록 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에 식량안보용 공익형 직영농장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식품가격경쟁력은 가격부담없이 우리밀 원료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 식량안보용 공익형 직영농장은 WTO 허용 보조이며, 이웃 일본도 유사체제를 통해 자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8

경주 영천 영덕 울진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김영석 영천시장은 16일 오전과 오후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차례로 방문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16일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16일 오전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영덕, 빠른 수도물비상급수 체계 가동 주민불편 최소화

영덕군은 지난달 한달 동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시설 상태, 소독약품 적정량 투입여부 등 시설 운영관리 상태와 지하수원 수량상태를 파악을 위해 시행했던 일제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위생상태 불량 1곳, 소독약품투입기의 농도조절 불량 2곳 등 문제점을 확인해 즉시 교체나 보수를 시행했으며 지하수맥 변동으로 인해 지하원수 부족현상이 발생했던 병곡면 각리2리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긴급 암반관정 착공공사 이후 현재 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 그동안 병곡면 각리2리 주민들에게는 관할 소방서의 비상급수 지원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병입 수도물을 요청·지원받는 등의 비상급수체계를 가동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까지 두 번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병입수도는 연중 1급수 중에서도 '1a'급을 유지할 정도로 우수한 수질의 원수를 정수처리를 통해 만든 수도물로서 세계 물맞대회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맛과 질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건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환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땀**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영덕, 과수 인공수분 실시 안정적 착과량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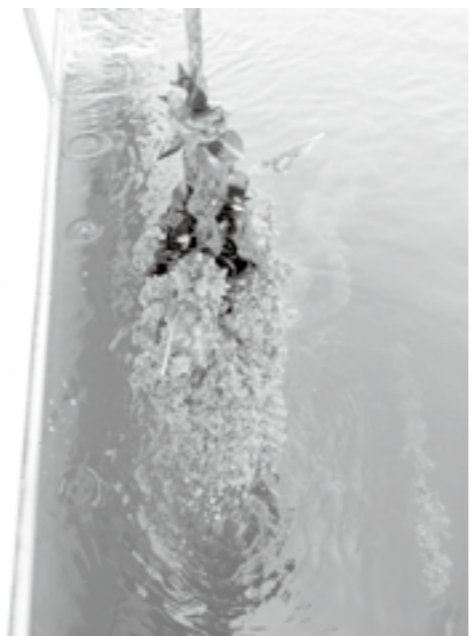
영덕군은 올해 봄철 이상기상 속에서 안정적인 착과량 확보를 위해 사과, 배, 복숭아 농가 200여 호 230ha 규모의 인공수분용 꽃가루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타가 수정을 하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는 최근 개화기에 강우와 저온 등 이상기상으로 방화곤충인 꿀벌의 활동성을 저하시켜 정상적인 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수분'은 수분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전년보다 따뜻해 개화시기가 2-3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화시기에 지속적인 강우 및 저온으로 인해 전년보다 인공수분 시기가 7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 김승건 기자



울릉, 우렁쉥이 양식 소득증대 기대



울릉군은 양식 불모지인 울릉도에서 새로운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험양식 통해 폐사 발생 거의 없어... 우렁쉥이 생육 환경 적합한 새 양식 적지

북면 현포리 연안 해역에 우렁쉥이 시험양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험 양식한 우렁쉥이는 지난해 11월 5일에 수하식 양식방법으로 평균 체고 2cm 정도의 종묘로서 5m 길이의 가지줄(수하연)에 130여개를 매달아 양식해 지난 10일 확인한 결과 평균 체고 7cm 정도로 양호한 성장을 보였으며, 올 가을엔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술지 김종만 박사는 "우렁쉥이는 저수온 생물이란 날이 따뜻해지고 수온이 올라가면 물렁증이라는 병이 생

기는데, 최근 주 생산지인 경남 통영과 남해안에서의 우렁쉥이는 물렁증으로 인한 대량 폐사가 발생했으나 울릉도는 이번 시험양식을 통해 폐사 발생이 거의 없어 우렁쉥이 생육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양식 적지다"고 말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향후 우렁쉥이를 지역의 대표 수산물로 육성하고 새로운 어업 소득원으로 발굴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번 우렁쉥이 성장 확인과정에서 간송한 밧줄에 최근 우리 군 연안 해역에서 발견된 낚미역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조류 시험양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렁쉥이에는 타우린과 신티아을 성분이 있어 노화 방지와 몸의 해독에 좋고, 바나눔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 시켜 당뇨 병과 생리 효과에도 아주 좋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정윤환 기자

영천 화산면, 꽃피(花山) 가꾸기

영천시 화산면은 지난 14일 기관단체장 및 각 마을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피 가꾸기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날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은 화산면의 주요 관문인 당곡교차로 사면과 주변 공한 지 등에 꽃잔디 및 영산홍 등 380그루를 식재했다.

김규생 면장은 꽃피의 고향 행복 화산의 슬로건 담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것이며, 오늘 꽃피 가꾸기 실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 기관단체장 및 각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고 마을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도영대 발전협의회장은 꽃피 가꾸기 실천대회에 각 마을의 주민들이 합심 단결하여 심은 꽃을 보고 화산인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 심은 꽃 등을 잘 관리해 항상 꽃이 피는 아름다운 花山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전했으며, 또한 본인이 직접 가꾸어온 벚꽃나무 500여그루를 각 마을별로 기증해 꽃피 가꾸기 실천대회를 한층 더 뜻깊게 했다. 김일만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부산지방국토청 방문

김영석 영천시장, 현안사업 건의

김영석 영천시장은 지역 주요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김영석 시장은 16일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국도 및 상주영천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영천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다.

김 시장은 오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권영철 영남본부장을 면담하고 화통동 및 금호구간 통로박스 신설을 비롯해 금도동 부

체도로 설치, 성내동 교량화, 금호 교대·대안빌라 민원대책 등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동해 박민우 청장을 면담하고 국도35호선 미확장 구간인 북영천IC-선천리 구간 4차로 확장 및 상주영천고속도로 연하동 구간 교량화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석 시장은 "대구선 복선전철화, 국도 확장 및 상주영천고속도로사업 모두 영천시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석 시장은 지난 4일에도 경산사에서 개최되는 경산식산업지구 기공식에까지 참석해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김일만 기자

영덕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기간 운영

30일까지 영덕군청 홈페이지
군청, 읍면사무소서 열람가능

영덕군은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가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12만164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친 후 갑

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영덕군청 누리집(http://kllis.gb.go.kr/)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승건 기자



경주 '해파랑'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해파랑 총 61.6점 423개 후보
브랜드 제치고 대상 영광 차지

경주시의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해파랑'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매년 우수브랜드를 발굴, 시상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 선정을 위해 대표 브랜드 대상 공모를 한다.

대상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2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 만16세 이상 대한민국 소비자 1687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브랜드 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브랜드 충성도 등 7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해

파랑이 총 61.6점으로 423개의 후보 브랜드를 제치고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주요일간지 특집기사 게재, 서울 변화가 육의 및 전광판 광고, 엠블럼 사용권한 및 글로벌 견학 등 다양한 수상 특전도 부여된다. 한편 브랜드 해파랑은 '경주의 맑은 해(海)와 깨끗한 파랑(波)', '자연이랑(랑) 바다'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8월에는 디자인제작을 완료했다.

경주시는 '해파랑' 사용을 원하는 경주시 관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상표권과 대상 수상 엠블럼 사용권도 허가할 방침이다.

'해파랑'은 2012년부터 관내와 수도권 각종 행사에 참가해 경주시 수산물 우수성 홍보와 시식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에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한 '2014년 우수 상표권 공모전'에서 은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윤용환 기자

아트경주 2015

ARTGYEONGJU 2015_3rd

개막식 | 2015. 4.30 (목)
HICO 1층 오후 5시
(보문관광단지 내)

▶ 전시분야 ◀
회화, 조각, 사진, 판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천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경주에서 현대미술의
감동과 생동감 넘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 5.1(금)~5.4(일)
11.AM ~ 8.PM

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개관기념 무료입장

2015 Bonghwangdae Music Square

동 황 대 뮤 직 스 퀘 어

2015. 4. 3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경주 봉황대 (신마당 후문 뒷편)

4/3
거주지 김윤환, 박종현, 김우나
개막콘서트
김수희, 최진수, 최선영의 핀다미믹스오케스트라 외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9

체험하고 즐기는 아파트 소방안전체험 교육

군위읍 행복정원 아파트
입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의성소방서 군위119안전센터는 지난 12일

군위읍 소재 행복정원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래 아파트 화재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고 있어 아파

트 입주민의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요령
을 숙지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시 119신고요령과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인명대피 기구인 완강기 사
용법 교육 순으로 진행 됐다.

박재성 기자



경산 청도
칠곡 의성
군위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김주수 의성군수는 16
일 의성체육관에서 열리는 노인복지관 명랑운동
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파푸아뉴기니 장관 일행 경산시 수도사업소 방문

파푸아뉴기니 벤 미가(Hon. Ben
Micah) 장관 일행이 선진수도시설 견학
을 위해 지난 14일 경산시 수도사업소를
방문했다.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 남서부에 위
치한 오세아니아 국가로 국민소득 3000
달러 정도로 불과하지만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수도 건설을 비롯한 물산업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 참석차 내한한
벤 미가 장관 일행은 경산시 응암·침전 급
속여과방식의 수도시설을 견학하게 됐다.
신경운 기자

의성,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한농연, 한여농 의성군연합회는 지난
14일 의성체육관에서 제24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열고 다양한 체육행사와
한마음 화합행사를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주수 의성군수, 신
원호 군의회 의장, 김선홍 (사)한국농업
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회장, 이정남 (사)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회장, 각
지역 농협장 및 기관, 단체장 등 한농연,
한여농 의성군연합회 가족 700여명이 참
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에는 농업경영인들의 위상을 제
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우
수회원 16명에게 의성군수, 국회의원, 의
성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사)한국농업
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회장, (사)한국여성
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 회장, 농협중앙회의
성군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지원 의성군위사무소장,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등의 표창장 시상이 있
었다. 박재성 기자

소들의 한판 승부! 청도 소싸움축제 오세요

2015청도 소싸움축제 개막식
15일부터 5일간 뜨거운 함성

청도소싸움축제가 15일 많은 내빈과 3만
2000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2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이번 청도소싸움축
제는 특히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 시기에 맞
춰 다양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를 통해 우
리 고유의 전통 민속소싸움을 선보이고 청도
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대내외에 알리게 된다.

이번 개막식은 온누리 국악예술단의 식전공
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선포와 가수 김혜연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올해 소싸움축제는 관람객의 흥미를 더하
기 위해 개막일부터 3일 간은 전통민속소싸움
방식인 채급별 대회, 주말 2일 간은 검발방식
의 경기가 진행되며, 예선을 거친 채급별 16강
이상의 싸움소 164두가 출전하여 총상금 1억
2100만원을 걸고 승부를 가린다.

이번 소싸움축제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체험축제로 경기장과 야외광
장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경기장에서는 우직
한 황소들의 불꽃 튀는 한판 승부에 관람객이
겉볼에 직접 참여하며 흥미와 긴장감을 더하



고 야외광장에서는 공연행사, 문화전시행사,
추억을 남기는 체험행사, 특별행사, 우수 농특
산품 특판전 등이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 중 17-19일 야간에는 청도
천 파랑새다리 일원에서 청도유등제가 함께
개최되어 삼강공예, 감물염색 등의 체험행사
와 형형색색의 유등과 장엄등이 밤하늘과 청

도천의 수면을 아름답게 수놓아 색다른 볼거
리를 선사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축제에는 어렵고 힘
든 곳에서 묵묵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함에
따라 지역관광 발전뿐 아니라 주민화합을 이끄
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강용규 기자

개막사에서는 "복사꽃이 만발한 청도를 찾
은 대내외 관광객들에게 박진감과 스티븐 넘치
는 싸움소들의 명승부와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축제
로 전통 문화 전승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용규 기자

군위, 시설하우스 이제 스마트폰으로 관리하자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현장설명회 개최

군위군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환경개
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경북도농업기술
원과 공동으로 홍성표(군위를 정리) 농가에서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
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 공무원 및 농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설
원에 생육관리 현장교육으로 진행됐다. 시설
채소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신개념의 과
학영농기술이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
마트폰을 이용해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

고 실시간 기존의 시설하우스 내 원예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 보급으로 현장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시설채소 재
배농가에 온·습도센스, 강우센스, 카메라 등
원격 환경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원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인력으로 45분 걸리는
작업이 6분으로 단축돼 획기적으로 노력이 절
감된다. 또 내부 환경의 정밀 제어로 병해충이
경감되고 상품성이 향상돼 고품질 안전 농산
물의 생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는 "스마
트 기기를 이용한 원격 환경제어 장치가 시설
채소 농가에 도입되면 기존 시설하우스에 원
거리에서도 제어가 가능해져 부족한 일손 해
결과 농가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을
개선으로 생산량 과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칠곡, CIS 종합무역사절단 모집

10개사 내외 기업체 모집 러시아 주요공업도시 공략

칠곡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러시아 CIS 종합무역사절단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오는 30일까지 10개사
내외의 기업체를 모집하며, 칠곡군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
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체별 상담품목에 대한 KOTRA,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현지 시장성 검토 후 파견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
정해 오는 5월 14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파견돼 러시아 주요공
업도시인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
보스톡 등을 공략하게 된다.

특히 이들 지역의 유망 품목이 플라스틱 원
료, 자동차부품, 산업용 발전시스템, 건설장비,
배치플랜트, 쓰레기 처리설비, 포장기계 등 다양
한 업종으로 참가업체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은 참가업체에 대해 현지 바이어 섭
외비, 수출상담장 임차료, 차량임차, 통역원 배
치, 기업인 1인에 대한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 파견으로 다양한
거래선 발굴로 지역기업의 수출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관
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치역 기자

칠곡군 동명면, 2015년 찾아가는 여성대학 개강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은 지난 15일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수강생 및 지역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찾아가는
여성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찾아가는 여성대학은 지역여성들에게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의 지적욕구 충족
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도전하는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교양,
건강, 생활상식, 문화체험 등 18개의 강좌를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오는 6월 12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에서 4시까지 운영한다.

김치역 기자



칠곡군
CHILGOK GUN

1914~2014 세한때를 100년 위대한 유산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농경시대문화의민족유산
국가유산 문화유산 유네스코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10

구미 김천
상주 청송
영양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박보생 김천시장은 16일 오후 김천탑웨딩에서 개최되는 이전기관-김천시 미혼 남·녀 커플 맺기 행사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 불철각종 시설 안전점검 시행 등 당면 현안사항을 강조한다.

상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농공단지 분야별 민간 합동

상주시는 '국가 안전대진단'에 발맞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농공,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 분야별 10개업체를 표본으로 선정,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민간합동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주 안전관리자문단(건축, 전기, 가스, 소방)으로 점검반을 편성, 농공단지 내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 전기, 가스, 소방 등 구조적인 분야와 농공단지 안전계획 등 비구조적인 부분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위험요소 사전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과 입주기업 등과 합동으로 재해 및 재난 취약지 및 합창, 외담농공단지 내 개별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징후 발견시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관리기관에 통보 사전 예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그밖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오재영 기자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인식 개선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사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구미역사 대합실에서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휠체어 타기, 흰자팡이 체험(시각장애), 거울미로찾기(지적장애) 등의 다채로운 체험이 이뤄졌으며 점차 명확 제작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작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작품으로 제작된 그림엽서에 친구와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기도 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새내기공무원 'Start-up' 특별교육

11만 상주시민 행복시대 연다

상주시는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신규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새내기공무원 Start-up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직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소통을 통한 활

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차세대 행정리더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했으며, 상주 바로알기 현장투어, 시청 주요 현안사업 설명, 공직자로서의 소통·시민과의 대화술 등 이미 지 커뮤니티케이션 특강, 새내기공무원의 다짐결의, 선배공무원과의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오재영 기자



군위·의성·청송,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1차 통과

군위 수요응답 대중교통지원 사업
의성 안계면 지역 경관개선 사업
청송 객주문학마을경관 조성사업
국토부 1차 통과 김재원의원 밝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군위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사업'과 '의성군 안계면 소재지 지역경관 개선사업',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경관개선 조성사업' 등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의실에서 15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은 인구변화율이나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낙후된 70개 시·군,

성장축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과 지역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창조 융합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0여개 사업이 신청해 이날 1차로 30여개 시군이 선정, 이 중 오는 5월에 20여개 시군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사업별로 최대 30억 까지 총사업비의 100%를 국비로 지원된다.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을 신청한 군위, 의성, 청송군이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위군은 적자를 이유로대중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벽지 마을에 25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사업'이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1억 원이 지원되고, 군위군 내 30여 개 마을 900여 명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게 될 전

망이다.

의성군의 경우는 폐가를 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원과 쉼터를 조성해 세계연축제(4월), 쌀문화축제(10월) 등을 찾아오는 외지 방문객을 대비한 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안계면 소재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최종 선정 시 총사업비 26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청송군은 객주 문학관 인근에 사과나무 가로수길 및 호반공원을 조성하고,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보부상 체험길, 달구지 체험길 등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객주문학마을 경관개선 조성 및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총사업비(국비)는 9억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이다.

국토부는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을 비롯, 1차로 선정된 3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성 검토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원 의원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총사업비 전액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1차로 통과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사업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구미시, 2015년도 국제협력사업 정기회의



2014 국제교류 추진성과 보고
2015 국제교류 추진계획 설명

구미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3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협조와 자문을 구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 국제교류 추진성과 보고와 2015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황충철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대형 국내의 행사를 잇달아 개최함으로써 많은 국내외의 관광객이 구미를 찾고 있고 독일 주재구미 통상협력사무소 개소와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사업 등으로 구미시의 국제화역량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민·관·산·학의 국제적 역량을 결집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국제화시대를 열어가길"을 당부했다.

구미시는 2014년도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구미시의 국제화

역량을 크게 격상 시켰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전세계 31개국 72개도시 500여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이 참가하는 제17차 세계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국내외의 탄소소재 복합재료 전문관계인사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2015 국제탄소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 아버지의 고향인 위남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일본 오즈시 자매결연 25주년 행사와 더불어 자매도시 공무원 스포츠 교류 및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 구미홈스테이 등 자매우호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미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최종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들로 구성·운영되며, 구미시의 국제교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심의·조정하는 민·관·산·학 협의체이다.

김기환 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 청소년 '꽃보다 헌법' 교육

이승철 검사, 학생 눈높이 강연

대구지검 의성지청과 법무부법사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청송군 현동면 현동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꽃보다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성지청의 이승철 검사가 맡아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사례, 학교폭력에 관련되는 법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강연을 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강의는 학생들이 반듯이 알아야 할 학교 폭력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를 법과 관련하여 알기 쉽게 전달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 검사의 강연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동안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검찰을 이해하고 새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교육에 참가한 현동중학교 학생들은 "강연 후 헌법이 왜 존재해야 하며 법이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소개로 자신의 진로는 선택하는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제21회 상주시민생활체육대회 18일부터 열린다

13개 종목 2500여명 동호인 참여

상주시는 시생활체육회 주최, 시종목별연

합회 주관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주시실내체육관 외 종목별경기장에서 '제21회 상주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식은 18일 오전 9시 상주시실내체육관(구관)에서 2500여 참가선수와 함께 열릴 예정이며, 식전공연으로 스포츠댄스공연과 축하가수공연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볼링, 수영, 야구, 자전거,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총 13개 종목에 2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또한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시키는 스포츠를 통해 동호인 상호간 친목 도모는 물론, 각 동호인 선수간 선의의 경쟁 속에서 화합과 우의를 나누며, 시민들에게는 '스포츠 7330운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재영 기자



영양의 향기와 맑고
멋진 아름다움
영양의 무한한 가치를 잘 다듬어
가장한국적인 도시로
영양을 창조해 나가는 것.

가장 한국적인 영양

The most traditionally Korean Yeongyang

발흥위기 농작물전시터
생지인덕미파크
은석리미당
정소기민락사업소
민어느리호수공원
신재골리조트도심
영양군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11

안동 영주
문경 예천
봉화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현준 예천군수는 16일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을 찾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일행을 접견한다.



문경시, 백두대간 능선 희양산 정상 표지석 설치

문경시는 희양산 정상 표지석을 새로 설치했다.

희양산은 산림청 지정 전국 100대 명산이며 백두대간 능선에 우뚝 솟은 신령스러운 암봉으로 경관이 빼어나 많은 산악인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하지만 기존의 표지석은 작고 초라해 희양산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아 봉암사와 협의해 이면에 높이 1.5m, 폭 0.8m의 큰 표지석으로 교체했다.

표지석의 앞면에는 한글로 백두대간 희양산과 해발 999m를 뒷면에는 한자로 白頭大幹 驪陽山이라 글씨를 새겨 희양산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했으며 새겨진 글씨는 봉암사 원근스님의 글이다.

오재영 기자

예천군, 2015 춘계 영농강습회 개최

예천군은 15일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사과재배 농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농업기술원 예천경제사업장(장장 정해운) 주관으로 2015 춘계 영농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에는 국내·외 과수 동향과 과수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능동농업 안동지점 최상욱 과장의 병해충 방제 및 우량과실 생산 등 사과재배에 대한 기술교육은 물론 고객중심의 브랜드 마케팅과 차별화,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한 시장 교섭력 제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황원식 기자

예천군, 친절·청결한 숙박시설 만든다

예천군은 대규모 체육경기대회를 앞두고 숙박 대책 마련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해 15일 예천군 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22일부터 전국실업육상경기,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 5월 영주에서 열리는 경북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경기를 유치하면서 많은 선수단

과 임원들이 예천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영업주를 대상으로 친절한 손님맞이, 위생적인 숙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예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친절한 숙박환경을 만들고 종업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면서 친절한 손님맞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의 성공여부는 대회장의 여건, 매끄러운 대회진행 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으로 먹거리와 숙박 문제가 친절 서비스와 청결한 위생 관리가 관건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황원식 기자

문경 오미자 와인, 세계 물포럼 만찬주로 선정

문경 오미자와인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으로 채택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3년마다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문경의 친환경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와인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이 개막일 환영리셉션 만찬주로 선정됐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물 관련 최대 국제 행사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와 경북 경주 하이코(HICO)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 장·차관급 고위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학자, 물 관련 기업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시민 등 170여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행사는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과학 기술 과정, 지역별 과정 등 4개 분야에 걸쳐 역

대 최대 규모인 400여개의 세션에서 세계 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각 과정마다 만찬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중 만찬행사의 하이라이트는 4월 12일 개막일 참가국의 고위급 당국자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환영리셉션으로 이번 세계물포럼 행사중 최대 규모 만찬행사의 만찬주로 문경 오미나라에서 만드는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 750ml가 선정되었다.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은 양조의 명인 이종기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와인으로 문경산 무농약인증 오미자만을 원료로 사용한다.

발효탱크에서 1차발효, 오크통에서 2차 숙성을 거치는 정통와인 제조 방식으로 3년가량의 발효숙성을 거쳐 만들어진 스틸와인(탄산이 없는 와인)으로 오미자 특유의 시고 쓰고 단 맛, 그리고 스파이시한 맛과 향이 조화로우며 긴 여운이 매력적인 와인으로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들도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각종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남아공 소믈리에 월드컵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월드 소믈리에로도 유명한 오형우 소



믈리에에는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을 '외관이나 향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해외의 로제와인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만찬주 선정에 참여한 세계물포

럼 조직위 관계자는 가장 한국적인 원료라 볼 수 있는 오미자로 만든 최고 품질의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을 세계 각국의 참가자에게 우리 술에 대한 거부감 줄이면서 의미도 좋아 만찬 행사를 빛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영리셉션 만찬주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미자로 정통와인을 만드는 오미나라는 오미로제 스파클링와인을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건배주, 오미로제 스파클링스페셜 와인은 2014년 부산ITU전권회의 개막만찬주, 오미로제 프리미어와인을 이번 세계물포럼 환영만찬주에 올려놓으므로써 근래에 열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에 만찬주로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이로써 오미로제를 세계 명주로 만들어 우리 농업 농촌에 기여, 나아가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술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이종기 명인의 꿈에도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오미로제를 개발한 이종기 명인은 총주에 술문화발전(리퀴리움)을 만들고 우리술연구소를 열어 바람직한 술문화보급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오재영 기자

영주시, 폐산업시설에서 문화공간 조성한다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 '폐산업시설, 창작문화 예술 공간·활용' 주제

영주시는 2015년 4월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을 '지역 폐산업시설, 창작문화공간 조성 및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문화예술단체 회원들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경북전문대학교 VR강의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시민과 소통·만남의 날'에는 (사)한국예총 영주지회 회원 및 영주아트센터 조성사업 관계자, 일반시민들과 함께 폐산업시설을 이용, 명품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주아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형식과 절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 받는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주아트센터 조성사업은 폐산업시설을 활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2014년)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폐산업시설로 경북전문대학교 식품과학관으로 사용했던 구 KT&G 영주공장 1층 3254㎡ 규모를 명품 문화창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공연장과 갤러리, 아트 커뮤니티, 세미나실 등을 조성,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문화예술시설의 부족으로 외지로 나가 창작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살아있는 농가맛집 '선비꽃 이야기'

신토불이, 지산지소 새로운 대명사

영주시는 14일 안경면 '선비꽃이야기'에서 장욱현 영주시장, 박찬훈 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개소식을 가졌다.

향토음식 전문식당인 '선비꽃이야기'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부석사 조사당 처미 밑에 꽃아둔 지팡이에서 피어난 선비꽃에서 이름을 따왔다.

또한 부석지역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돼 오던 토종 콩이 있었는데 1940년경에 부석태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으며, 크기가 일반콩의

1.8~2배정도 커 지역 토종콩으로 손색이 없다.

부석사를 배경으로 한 선비꽃과 부석지역의 토종콩 부석태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한 농가맛집 '선비꽃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은 현대를 살아가는 삭막한 도시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한 줄기 물과도 같다 할 수 있겠다.

'선비꽃 이야기' 농가맛집 이신욱 대표는 "일반식당과 다른 농가맛집의 차별성은 식재료에 있는데, 기존 식당과 달리 지역 토종콩인 부석태를 이용해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더 믿고 음식을 들 수 있고, 음식의 조리방법, 효능, 재미난 유래 같은 음식해설을 해드리는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생기며, 또 음식들이 향토음식이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며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전상기 기자

안동, 전국 유일 여성축제 여성민속한마당 행사 열려

여성들 독창적 문화콘텐츠 발전

전국 유일의 여성축제인 제13회 여성민속한마당 행사가 오는 25일 12시30분부터 웅부공원과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여성의 문화를 독창적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킨 이번 행사에는 자연과 가까이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염색과 규방공예, 안동포 향주머니, 접미다래, 두리차회, 야생화 체험과 부녀자들의 삶을 소리로 들어 볼 수 있는 내방가사 경창시연이 펼쳐진다.

또 안동의 음식문화를 테마별로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손님상차림과 추억의 음식, 전통가양주, 향토음식, 사찰음식, 어린이 화전놀이, 전통 떡 만들기 체험 및 여성들의 솜씨 발휘할 수 있는 대회로 향토음식축제 대회, 경상북도 화전놀이 대회, 경북도 노국공주 선발대회, 널뛰기 대회, 청소년 제기차기·줄넘기 대회 등 평소 가꾸어오던 문화예술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안동늬다리발기 시연과 특별 초청공연인 동춘서커스 공연, 민요·가요·국악·성악·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마련된다.

안동문화원 관계자는 "여성민속한마당 축제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문화적 역량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문화를 잘 지켜오는 안동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질여가는 녹음과 함께 지역여성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규 기자



영주시 소수시원



대구광역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12

기숙사 찾아 아침식사 학생 의견 귀담아 들어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이 학생 기숙사를 찾아 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홍 총장은 비호생활관 그린테리아(기숙사 식당)를 찾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식사 준비에 분주한 식당 직원 및 기숙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비호생활관 학생자치기구인 비호자치회 학

홍덕률 대구대총장의 특별한 행보

생들과 함께 자리해 아침식사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환 비호자치회장(23·공법안전법학전공 4년)은 “학생들이 리모델링 된 기숙사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며 “앞으로도 메뉴 다양화와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날 홍 총장은 비호생활관 주변 환경을

돌리보고, 캠퍼스 순환버스에 탑승하는 학생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버스가 학생들로 붐비자 홍총장은 “캠퍼스 순환버스 증편을 검토하는 게 어떤가”라며 학생 통학 편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 총장은 지난 8일 열린 총학생회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다 대학의 경우 총학 출범식에 총장이 참가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홍덕률 총장은 학생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다. **신경운 기자**

명품 경북 교육의 완성 노사 공동 선언 협약

전국 최대 교육청 단일 노조 소통과 협력 결과

경북교육청은 15일 칠곡 평산 아카데미에서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호 협력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상생 선언 협약식은 2006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교육청과 노조가 소통과 화합을 꾸준히 실천해오면서 협력관계가 한층 성숙돼 이뤄진 결과로서, 건전한 노사문화의 발전적인 도약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령 준수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정치적 중립 및 선진 노조 문화 확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명품! 경북교육 완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5개 사항에 대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고 선



언문에 서명 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상생 선언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를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조부터 청렴실천 운동을 벌여 노사가 하나된 힘으로 명품 경북교육 완성에 밀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성용 기자**

영남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양성 컨퍼런스

영남대가 '제35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양성 컨퍼런스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대구장애인체육회와 한국특수체육교육회, 아시아특수체육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영남대 사범대학 소강당에서 열린다.
올바른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특수체육교육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복지 향상'(곽동주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의 복지, 스포츠가 답이다'(박기용 아시아특수체육학회 회장)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영남대 테니스장과 이회건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는 장애인 테니스 국가대표 이하걸 선수와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최경식 선수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경기가 열린다. **신경운 기자**



영남이공대 화이트해커 보안윤리 서약식

'사이버 범죄업무' 특성상 종사자 윤리의식 역시중요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재학생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화이트해커 보안윤리 서약식이 열렸다.
지난 14일 대학 협동관 보안관제센터에서 박종렬 부총장과 1학년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트해커 보안윤리 서약식을 가졌다.
보안윤리 서약식은 사이버 범죄업무의 특성상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하고 있다.
행사는 학생들의 보안윤리 선서, 무감독 양심고사 동의서 제출, 박종렬부총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리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학업 중 습득한

해킹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인가되지 않는 타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침해하지 않고, 향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양심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이버보안과 1학년 전현중학생은 “우리들은 윤리적인 보안전문가 양성이라는 학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의미에서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험감독이 없더라도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무감독시험에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정삼 학과장은 “정보보호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성숙한 도덕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들을 수시로 겪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윤리교육을 통해 비양심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심어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수 기자**



대구한의대, 찾아가는 취업지원활동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취업 홍보 체계적인 진로지도... 취업 적극지원

대구한의대학교 취업지원팀(팀장 전병찬)은 15일 오전 등교시간에 맞춰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마인드 제고를 위한 취업의 날 행사를 가졌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시 진로지도프로그램(L.C.P)과 취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방피부미용과 김지영(4학년)학생은 “취업을 위해 평소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시간에 맞춰 직접 찾아와 취업프로그램을 홍보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학교 취업지원팀은 취업전담교수제, 취업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강소기업체협프로그램, 각종 자격증반, 취업멘토링, 취업동아리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취업지원팀 전병찬 팀장은 “대학에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 주체인 학생들은 이를 잘 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홍보와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지원팀과 학생으로 구성된 취업서포터즈는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취업프로그램 책자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했다. **신경운 기자**

2015 월드슈퍼 바리스타 챔피언십(WCBC) 대상

대구공업대학

대구공업대학교(총장 이별나) 호텔외식조리계열의 바리스타 전공동아리 '가비에'(지도교수 정인철)가 2015년 월드슈퍼바리스타챔피언십(WBC)에 출전하여 대상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예선을 거쳐 시행된 대회로 대구공업대학교에서는 단체 2팀(Q&A 우체국, Vinca 투어)이 출전하여 Q&A 우체국(김정원, 김수정, 박지은 이상 2학년)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되며, 개최 첫날인 9일 학생부 단체전에서 대상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300만원의 상금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마지막으로 수상소식을 접한 이별나 총장은 “학생들이 몇 개월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이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경수 기자**



꿈을 향해 달리는 장애청소년

우리학교 최고야!

화원중학교

화원중학교가 제9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영남지역대회에 참가,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스페셜올림픽의 육상, 보체, 탁구, 배드민턴 네 종목에 영남지역 지적발달 장애인 선수 373명이 참가하였다. 화원중학교 특수학급 선수 5명은 육상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겨루며 동료선수들과 우애를 쌓았다.
육상 아동부 50m에 출전한 권정원, 김병



현, 이수현 선수는 금·은·동메달을 각각 획득, 아동부 100m, 200m에 출전한 정재환 선수는 은메달 2개, 청소년부 100m, 200m에 출전한 이우성 선수는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최고보다 최선을! 전국 초등야구대회 진출

구미 도산초등학교 야구부

도산초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11일 동천초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국초등야구대회 2차 경북예선리그를 마무리 지어 3위로 전국대회 진출권을 따냈다.
올해부터 토너먼트가 아닌 풀리그로 변경된 경북예선은 총 4개교가 참가, 승점제 방식으로 가장 높은 승점을 획득한 학교부터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도산초 야구부는 당당히 3위를 차지하며 회장이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됐다.
1차 풀리그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2차 풀리그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은진 기자**



도산초등학교는 총 6경기에서 적은 인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마다 점점을 펼쳐며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도산초 야구부의 건승을 기원, 도산초등학교가 참가할 회장이 야구대회는 올해 9월 열린다.

도교육청, 학교 내 대안교실 38개교 운영

학업부적응·학업중단 예방 총 2억5000여만 예산 지원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내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충을 통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의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38개교를 선정 운영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 내에서 별도의 학급으로 정규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년부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대안교실 운영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관심, 희망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로·직업 프로그램, 심리 및 미술 치료, 체험학습, 자기계발 등의 대안교과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38개교에 총 2억5000여만의 예산을 지원한다. **김성용 기자**

수성구 희망나눔 봉사학교 학생 경로당서 봉사활동 펼쳐



'수성구 희망나눔 봉사학교' 학생(정화영 1학년생) 10여 명이 15일 오후 3시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예절교육과 다례 시연을 보여주는 등 훈훈한 한때를 보냈다. **구경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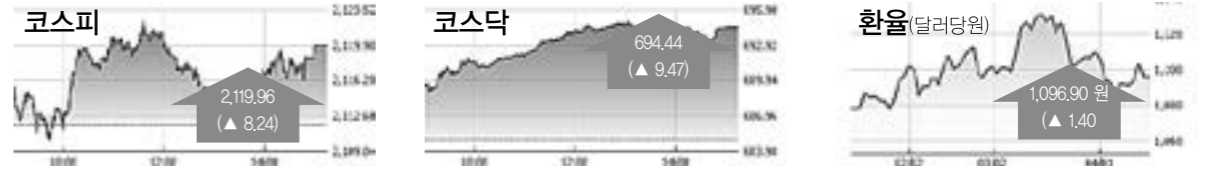
저소득층 학생 대상 '희망을 꿈꾸다'

구미 진평중

진평중학교가 교내에서 '희망을 꿈꾸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및 보충학습에 대한 욕구에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학생들을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 및 자신감 향상과 학교적응력을 높인다.
진평중학교는 2006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로 선정된 이후 9년 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다. **이은진 기자**



롯데백, 봄맞이 홈스타일링 기획전

완연한 봄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홈스타일링 인기 침구류 진열 가구 최대 70%



4월 중순,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한파가 잦아들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이와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침구를 활용해 집안으로 봄을 들여다 놓으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 요인에 따라 내 집을 아늑한 나만의 공간으로 꾸미려는 열풍 또한 거세다. 통상적으로 1인당 GDP 3만 불을 기점으로 집안 꾸미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점과 상인점을 비롯한 대구지역 롯데백화점들은 본격적으로 봄맞이 홈스타일링 기획전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오는 19일까지 6층 행사장 및 각 브랜드 본 매장에서 '2015 유려 피인 홈스타일 대전'을 선보인다. 지역 최대 규모로 이탈리아, 디자인벤처스 등의 유명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진열 가구를 최대 40% 할인하고 미항공우주국 NASA가 인증한 텀퍼의 매트리스 또한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장을 찾는 방문 고객에게는 고급 원두 커피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동현 롯데백화점 대구점 생활가전 플로어장은 "최근 들어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집안 내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리빙용품 특집전을 기획해 트렌드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인점 1층 샤푸테 광장에서는 오는 19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희

망나눔 판매전'을 진행한다. 스키프, 양말 8족 등을 1만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7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롯데상품권 5천원도 증정한다. 지역 대표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호평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성용 기자

백화점 소식

DEBEC 4월 셋째주 유통 단신

유명 스포츠·아웃도어 봄 상품 특집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은 본격적인 캠핑철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15-19일까지 '유명 스포츠·아웃도어 봄 상품 특집전'을 10층 이벤트 홀에서 연다. 행사에서는 '블랙야크 / 노스페이스 / K2 / 컵비버 / 밀레 / 라푸마 / 마운틴하드웨어 / 몽벨 / 나이키 / 아디다스 / 데장트 / 휠라 / 디아도라 / 헤드 / 프로스펙스' 등 유명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바람막이, 트레이닝세트, 운동화, 워킹화등을 저렴한 가격에 할인판매한다. 가족 봄 나들이를 계획하고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쇼핑 찬스로, 행사기간 20/4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 대백상품권 1/2만원을 증정한다. (120명 한정. 중복증정 불가) △주말 3일간 '대백상품권'을 드립니다. 17-19일까지 주말 3일간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을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점은 구매금액 20/50/100만원이상 구매시 1/2.5/5만원 대백상품권을, 프라자점은 30/60/100만원이상 구매시 1.5/3/5만원 대백상품권을 본점 9층 프라자점 지하 1층사은품 증정장에서 제공한다. 행사기간 대백(씨티·대구은행)카드 50만원이상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마련된다. (임대매장 및 일부코너 제외)

롯데백화점

롯데 대구·상인점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

롯데백화점 대구·상인점은 14, 15일 이틀간 의료 소외 이웃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점은 파동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상인점은 달구벌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이번 건강 검진 서비스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초음파, X-ray를 포함한 총 70개 항목에 대한 정밀 진단까지 포함됐다. 검진 결과에서 중증 질환이 발견되는 환자에게는 10명에 한해 수술비와 치료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첫 출범한 '찾아가는 건강검진'은 열린 의사회, 고려대학교 안암병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연계해 올 4월까지 롯데백화점 전국 44개 점포 인근의 저소득 지역민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구점과 상인점은 각각 전국에서 37번째와 38번째로 지역 의료 소외 계층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행사기간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직원 2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조하고 검진 안내 및 채혈 보조 등의 활동을 도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무길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원팀 관리자는 "우리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순간에 가장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롯데아웃렛 이시아폴리스점과 울화점 역시 16, 17일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와 제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무료 건강검진 봉사활동을 한다. 최경수 기자



김천 전통시장 물가, 곡물·채소 ↑ 과일 ↓

콩 출하량 감소 5000원 오른 26만5000원 거래



김천지역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곡물류와 채소·양념류는 최근 산지출하량 감소로 오름세인 반면 과일류는 출하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였다. 김천상공회의소는 평화·황금·감호 등 김천지역 재래시장의 주요 생필품 58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콩(백태 상품 70kg)은 산지 출하량 감소로 5000원이 오른 26만5000원에 거래됐다. 최근 계속되는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한 오이(상품 1개)와 상추(상품 1kg)는 각각 200원과 2000원이 오른 900원과 5000원에 판

매됐다. 저장품 출하량이 줄면서 사과(상품 1개)와 배(상품 1개)는 각각 500원씩 오른 개당 3000원씩, 참외(상품 10kg)는 소비 증가로 2500원이 오른 6만7500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반면 산지 출하량은 늘었지만 매기가 부진한 토마토(상품 10kg)는 3만6000원으로 4000원이 내렸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산지 출하량 감소 여파로 배추(상품 1포기)와 무(상품 1개), 오이(상품 1개)는 42-50%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전반적인 소비감소로 돼지고기(상등육 600g)와 닭고기(육계용 상품 1마리)는 4-5% 정도 하락했다. 최규목 기자

편지 한 통으로 세계인과 소통해요~



제7차 세계물포럼이 열리고 있는 대구 엑스코내 'KOREAPOST'에서 외국인들이 고향으로 기념엽서를 쓰고 있는 모습.

경북지방우정청 세계물포럼 행사장 'KOREAPOST' 운영

경북우정청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맞아 17일까지 'KOREAPOST'를 운영한다. 'KOREAPOST'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의 편리를 위해 EMS국제우편 접수·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람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국제 고객맞춤형엽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세계물포럼 기념우표점을 판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병철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앞으로도 지역내 주요행사에 편지쓰기 코너를 운영해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소통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송승관 기자

"올해 말부터 10억 초과 거액도 한번에 이체"

금융결제국 등 참가 개편 작업을 진행 중

이르면 올해 말부터 10억원을 넘는 거액 자금도 인터넷 뱅킹 등 소액결제망을 통해 한번에 이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망 개편반'을 신설해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망 개편반은 한은 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통망을 연결해 거액자금 이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금은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한 번에 이체 처리할 수 없어 수 차례에 걸쳐 나눠 보내야 했다. 뉴스

고객 송금이 많은 기업들은 100억원을 송금할 경우 10차례에 걸쳐 분할해 전송하는 등 이체금액 제한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거래 은행들도 지급결제 시차에 따른 신용 위험 노출 등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거액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한은망을 매개로 동시 결제가 이뤄져 관련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말 거액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금융결제국 등 유관 부서가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미국·일본·스위스 중앙은행 등도 이러한 거액결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다"면서 "자금이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이체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 제공한다

대구 지방국세청과 대구 도시철도공사 상호 양해각서서명

대구국세청은 시민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15일 오후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

었다. 협약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됐다. 대구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월1-6월1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한다. 대구국세청은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

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준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매년 5월1-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원우 기자

온라인쇼핑몰(B2C) 진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쇼핑몰별 300개사 1500개사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지부장 박윤식)는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2015년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진출을 돕기 위한 '2015년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 참여기업은 모집한다.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 사업은 이베이에,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쿠팡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을 세계 각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선정, 상품페이지 번역 및 디자인, 등록, 홍보, 배송 및 C/S 등 판매 업무 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판매전문기업 지정 △온라인쇼핑몰 한국관 개설 △1500개사 판매대행(이베이에, 아마존, 라쿠텐, 쿠팡, 타오바오 각 300개사) △200명 파워셀러육성 △온라인쇼핑몰 가이드북 배포 등이며, 한국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B2C) 시장 진출을 활성화 한다. 모집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영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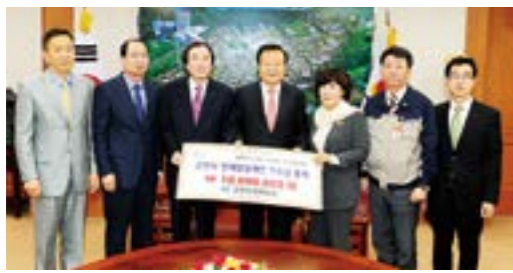
안동경찰서, 스마트한 경찰의 '아름다운 미담' 지갑 찾아준 김정렬 경위



안동경찰서 입하파출소 경위 김정렬(사진) 경찰관의 미담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안동시 입하면 백운정 유원지에서 가방을 분실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오전에 뱃짓놀이를 하러 집에서 한참 떨어진 백운정 유원지에 놀러 왔다가, 오후에 귀가를 했는데, 가방을 유원지에 놓고 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신고를 접수한 입하파출소에서는 분실된 장소인 백운정 유원지를 살살이 뒤져 신고자가 잃어버렸다는 지갑을 찾아 주게 되었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신고자는 지갑을 찾아준 경찰관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경찰 최고입니다"라는 감사 문자메시지를 담당경찰관에게 보냈다. 작은 선행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찰의 참모습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며, 김 경위는 주변 경찰관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김경구 기자



김천인재양성재단에 기금 쾌척 김천상공회의소, 1천만원 전달

김천상공회의소는 김천의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김천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4일 2층 접견실에서 김정호 김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김천의 인재육성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공인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보생 재단이사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한축이 되는 김천의 인재육성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 인재들이 김천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953년 설립된 이래 상공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규국 기자



구미 시민만족과 송현정 주무관 민원실 1/4분기 스마일왕 선정

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 민원실 1/4분기 'Smile왕'으로 시민만족과 송현정 주무관을 선정하고 증서 전달과 스마일왕 액자를 민원실에 게시했다. 시는 고객만족 실천을 위해 전 직원이 근무전 'Smile365운동'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Smile왕'은 모범적으로 Smile을 실천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행사로 스마일 측정 현장조사, 스마일365 활동, 직원신문, 스마일다짐시간 참여도의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으로 친절할 공적품도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스마일왕으로 선정된 송현정 주무관은 가족 관계등록 사건기록업무 담당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성실한 일처리와 친절할 민원상담으로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종원 부시장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미소로 시민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권정찬 화백 작품 헝가리 대통령에 선물 화제

2009년 라슬로 쇼요 전 대통령에 목단그림 전달 2015년 아데르 아노쉬 전 대통령에 최근작 전달

한국화의 대표적 작가인 권정찬(경북도립대학 교수)화백의 작품이 200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방한 중인 헝가리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돼 화제가 되고 있다.

2009년에는 당시 라슬로 쇼요 헝가리 대통령이 국빈 방한 시 한국?헝가리협회 이재녕협회장이 권화백의 색채 짙은 민화적 이미지의 목단 그림을 전달했고 이번에는 물포럼 참가 차 방한한 아데르 아노쉬 대통령과의 공식만찬장에서 헝가리대통령내외분과 이재녕 한국?헝가리협회장부부를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과 권정찬, 황연화(중



2009년 라슬로 쇼요 헝가리대통령에게 선물한 작품

원대학 교수)부부가 초대된 가운데 권화백의 부엉이와 나무숲을 주제로 한 흑백위주의 최근작이 대표 선물로 전달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임을 부연 설명하는 등 작가에 대한 예우를 받았다. 특히 이번 헝가리대통령내외를 만찬에 초대한 한국?헝가리협회 이재녕 회장은 권화백의 작품을 소개하



2015년 아데르 아노쉬헝가리대통령에게 선물한 작품

며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화가로 서양과 남미 등까지 최고의 예우를 받는 작가로 소개해 헝가리 대통령부부와 내외귀빈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권화백은 계명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받았고 대학재학시절 국전에 연이어 입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인물. 수묵과

채색을 거쳐 도화, 오브제, 벽화, 서예, 문인화에 이르기까지 독자적 화풍 개척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일찍이 해외진출로 입지를 굳힌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헝가리 두 대통령은 물론 호소가와 일본 전총리, 말세리노 쌍과울로 프로축구구단주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국가주요기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 수백점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국내외 초대로만 40여회의 개인전을 가진 그는 올해도 9월초 대구 수성아트피아와 서울 인사동에서 150호 크기의 대작전을 가질 예정이고 향후 해외 전으로 헝가리와 프랑스, 미국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문경에서 이런 대화백이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한다는 자체로 문경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작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영남대 약대 동문들, 후배 위해 장학기금 2천만원 쾌척

85년 졸업 동문 70여명 발전기금 릴레이 기탁

영남대 약학대학(학장 정태천)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지난 12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영남대 약학대학 '81입학·85졸업 동기회'(회장 최철)가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모교 방문 행사 및 사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약학과 81학번 출신의 허만돈 동문(모교방문 행사 준비위원장)이 정태천 학장에게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이날 자리를 함께한 1981년 입학, 1985년 졸업 동기 40여명 등 총 70여명이 뜻을 모아 이루어진 것이다. 허만돈 동문은 "지난해 약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대학과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동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뜻을 같이 모으기로 했다"며 "졸업



한 지 30년이 지나서 찾아온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모교와 후배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천 학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잊지 않고 있는 선배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후배와 모교 사랑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영남대 약학대학 동문들과 교수들의

모교 사랑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약학과 55학번인 박재돈(현한국파마 회장)이 발전기금 10억을 기탁했으며, 앞서 10월에는 이수근 약학대학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대학 발전기금 1억 5000만원을 기탁하면서 전국의 동문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후배사랑 50억 모금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영남대 약대 교수들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모아 발전기금으로 총 5억 원을 모으기로 약속하기도 했고 약학과 71학번 박영희 동문도 졸업한지 40년 만에 모교를 찾아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약정된 모금액은 총 23억여원에 달한다.

최경수 기자

한수원, 짜장면 함께 나누는 '블랙데이' 무료급식 봉사

경주시역 소외계층 300여명 대상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 경주본사는 14일 블랙데이를 맞아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주시역 소외계층 300여명을 대상으로 '짜장면 함께 나누는 블랙데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화요리 전문식당의 재능기부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본사이전추진센터 직원 20여명(센터장 최성환)이 참여해 현장에서 손수 짜장면을 만들어 독거노인, 기초수급 생활자에게 정성껏 대접했다.

복지관 직원은 "술로들이 외로움을 달랠다는 블랙데이에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하니,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가 연인이 된듯 행복한 날이다"라며 "이런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경주 시민들의 마음도 녹일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성환 센터장은 "면과 짜장이 잘 비벼져야 맛있는 짜장면이 되듯, 한수원과 경주시민들도 잘 비벼져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안전한 전기 따뜻한 나눔'

영천시전기협회, 화남면서 봉사

영천시전기협회는 지난 14일 안전한 전기공급을 위해 화남면사무소에서 '안전한 전기 따뜻한 나눔' 발대식을 진행하고 화남면 소재 화남이 어려운 이웃 37세대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고 세대별 라면을 전달하면서 훈훈한 정을 나눴다.

서무한 영천시전기협회 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형편이 어려워 위험한 전기 시설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과 재능 기부의 마음을 전하고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윤철 화남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기협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임직원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회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일민 기자

영양군 행복배달센터 '자장면 시키신 마을' 운영

짜장면 배달 안 되는 오지마을 찾아

영양군 (사)자원봉사협의회(이사장 김길동)가 주관하는 '자장면 시키신 마을'이 지난 15일 오전 10시-12시 입암면 산해3리에서 진행됐다. 2008년 이래로 매월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자장면 시키신 마을'사업은 짜장면을 시켜도 배달이 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옛 향수를 그리게 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자장면을 만들기 때문에 정성이 듬뿍 담긴 자장면을 맛볼 수 있어 마을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입암면 산해3리 흥정포 마을이장은 "자장면을 먹을 기회가 없는 우리 마을에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손수 짜장면을 만들어주니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자장면 시키신 마을'사업은 매월 셋째주 수요



일마다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군위군, 고개감동 일일친절 조희

공직자 의식전환·행정신뢰도 향상

군위군은 지난 15일부터 매일 아침 고개감동 일일친절조희회를 실시한다. 이번 친절조희회는 평소 군민 친절행정, 섬김행정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 김영만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긴장을 푸는 가벼운

친절제조와, 고객에 공감하는 친절인사,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서 친절구호의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 50분부터 부서내 방송에 따라 진행된다. 김영만 군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친절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일의 친절조희회에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익을... 생각한다

■ 광역칼럼 수석교사제, 현장 착근을 위한 해법은 없나



김희규
신라대 교수

수석교사제도 도입 된지 언 8년을 맞이하고 있다. 시범운영 4년과 법제화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30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 기를 고대했던 제도이었던 법, 법적 제도가 무색하리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는 관리직의 우위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단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로 재편하여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으로 학교의 역할 체제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누구나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교내의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듯하다. 학교가 기존의 폐쇄적이고 관료문화에 익숙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다소 관행이 일상화된 교직문화의 특성상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거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생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리거나 심하면 제도의 존폐까지도 거론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두말나위 없이 교원의 임무는 학생교육에 귀결된다. 학생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훌륭한 선생님 지도하에 양질의 수업을 받기를 원한다. 수업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할 것이다.

교육수요자는 수업을 잘하는 유능한 선생님을 원한다. 이러한 수업전문가를 발굴해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수석교사제의 근본 취지이다.

제도의 조기 착근에 지혜를 모으기 보다는 본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의 탓과 문제제기로 일관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갈등요인으로는 수석교사의 위상과 권한, 역할, 처우, 복무 등으로 기능적이거나 현실적인 접근에 기인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수직의 직위상승으로 상위직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무규정 및 행정행위상 교무관리 및 지도감독권을 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기에 교장 및 교감의 직위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두 직렬간에 유사직급을 거론하면 이원화 직렬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장학관과 교육연구관간의 상위직을 논하는 꼴이다. 이러한 오해의 불씨는 학생교육중심의 표면적 논리와는 달리 그 이면에는 관련 당사자간의 헤게모니로 비춰진다. 자칫 별도 규정에 의한 수석교사의 위계 선정은 학교를 관료조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

수석교사는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선도적 역할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수석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추진 동력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강력한 정책수행 의지에서 비롯된다.

수석교사의 매력있는 유인체제 속에서 엄격한 선발과 연수 및 재임용 등의 선순환 구조를 조망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교장 등 교직원들에게 수석교사 관련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석교사 운영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후속 컨설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윤신근 애완동물 이야기 고슴도치 가지, 맨손으로? <32>



윤신근
수의사

고슴도치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며 초원, 사막, 산림, 과수원 등에서 서식한다. 몸은 짧고 뚱뚱하고 눈과 귀가 발달하였다.

특징은 등에 난 가시이다. 만약 어떤 녀석이 공격해 오거나 위협을 받는다 생각하면 몸을 둥글게 만들고 가시를 잔뜩 곤두세워서 자신의 몸을 방어한다. 이 가시를 믿어서인지 고슴도치는 정원이나 공원, 경작지나 가까운 숲 등지의 인가 가까운 곳에 살며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고슴도치는 식충목으로 분류되는 동물로 그 몸이 작다는 점과 얼굴 생김이 닮아 있다

는 데서 쥐 종류와 같이 취급된다. 보통 고슴도치라고 부르지만 그 종류가 17가지나 된다.

고슴도치는 애완 동물로 기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체온을 느끼고 함께 노는 것이 목적이려면 적당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러나 사육하다 보면 고슴도치도 점점 사랑과 익숙해져 몸을 둥글게 곤두세우는 일도 그만쯤 없어진다. 이때 손바닥을 이용해 밑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려 맨손으로 접촉할 수 있다. 간혹 사나운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 있는데, 갑자기 물 수가 있으므로 잠을 잘 때나 먹이를 먹을 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거의 완전한 야행성으로 낮에는 흙 속에 기어 들어가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밤이 되어도 쏜살같이 뛰어다니는 일은 별로 없다. 배가 고파도 삼삼삼삼 움직이지기 때문에 케이지가 작아도 된다. 그만큼 기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동물이다. 그러나 금방 싫증을

내는 사람이 많으므로 진기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르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고슴도치의 등을 만져보고 싶을 때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만지면 안전하다.

별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크기에 비해 작은 듯한 케이지를 활용하여도 충분히 사육할 수 있다. 함부로 아무 데나 올라가지 않으므로 전용 케이지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크기의 상자에 넣어 기르면 된다. 속이 깊은 상자라면 뚜껑을 안 덮어도 되지만 도망가는 놈들도 있으니 뚜껑을 해두는 편이 좋다. 고슴도치가 전기 코드 등을 물어뜯는 일은 드물다.

밖으로 도망치게 되면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 흙 속에 숨는 데 능숙한 동물이므로 종이 부스러기나 짚 등을 기어 들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잔뜩 깔아 준다면 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관련 교재에 일본 주장을 신다니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용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했으나 학생들이 읽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들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초중고 교재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심지어 "일본군에게 몸 팔다 왔대요" 같은 부적절한 문구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는 초중고 학생별 워크북과 교사용 동영상·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된 교재로, 교육부는 이달 중순 배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재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그대로 배포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면할 수 없게 됐고 일본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됐다. 심지어 동영상의 한 장면에선 주민들이 한 위안부 소녀에게 "3년 동안 일본군들에게 몸 팔다 왔대요"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도 포함됐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워크북엔 '성병 감염, 인공 유산, 불임 수술' 등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학생용 교재에 일본군이 위안소

를 만든 이유를 설명한 부분도 일본 측 주장만 제시됐을 뿐 이러한 논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설명은 빠져 있다.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는커녕 저들의 주장을 대변한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초·중학생용 교재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 네 가지가 상세히 서술돼 있는 것은 기가 막힌다. 해당 교재는 점령 지역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성병으로 인한 병사들의 전투력 소모 방지, 스트레스 받는 군인들에 대한 위로, 민간 업소 이용 시 군대 비밀 누설 방지 등을 명목으로 내세우는 등 위안부를 동원한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놓았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작당하여 친일 망동을 저지른 셈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인식이 이 정도로 경박하니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나 위안부 등을 둘러싼 터무니없는 역사왜곡에도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교육부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감수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문제점을 밝혀낸 한선교 의원의 공로가 컸다.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재를 만들기 바란다.

물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성과 크다

세계 물포럼의 성과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영진 대구시장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토마스 리먼 덴마크대사와 세계 최고 물 관련 연구기관 덴마크 DHI 존라스무센 부사장은 권 시장의 투자권유를 받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하는 것을 타진했고 세계 물시장점유율 1~2위 기업인 프랑스 베올리아와 수에즈 대표도 물클러스터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물리테스메 에티오피아 대동령은 권 시장에게 "대구의 우수한 농기계·첨유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 경제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 정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월척이 있다. 세계 물포럼 행사를 물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이다. 14일 대구시-이스라엘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3분의 2가 건조지역으로 2013년 연간 3억2000만 톤의 물을 해수담수화를 통해 공급하여 생활용수 공급량의 40%를 공급 중인 기적을 실현한 국가다.

이스라엘은 물 재이용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2006년 경제부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NewTech 설립 이후 물산업클러스터

를 본격 추진하여, 현재 400여 개의 물, 에너지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의향서 체결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또 대구시-밀워키시-美물위원회-韓물산업협회 4자간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미국 워싱턴주의 밀워키시는 150여 개의 우량 물기업과 2만여명의 물 관련 종사자의 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인 물산업 도시이다. 대구시는 이번 4자 협력의향서를 바탕으로 올 9월경에 상호 인력,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양 도시 간 물산업 클러스터의 협력방안을 담은 MOU(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의향서는 국제거러에 관한 협상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므로 MOU에 이르기까지 대구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튼 물산업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만 거친 단계에서 고위급 컨퍼런스와 2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물산업선진국들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바란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신문만이 아니라 신문 내용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정자연 갈라파고스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대성그룹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에너지 빈곤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몽골 GEEP / 나란 / 민다호 사업	에티오피아 사업
키르기스탄 사업	방글라데시 사업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회사의 수익모델"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모다아울렛 3층 **미소페**

대표 고재운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16
010-2327-5555 / 053-593-4838



MISOPÈ

